

천만송이 국화재배 본격화

임실군농기센터, 치즈테마파크 일대 국화꽃 경관 분화국·현애국 확대 생산

임실군이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의 백미인 천만송이 국화꽃 재배를 본격 시작했다.

군은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될 2023년 임실N치즈축제'와 옥정호 봉어섬 단장을 위한 형형색색의 국화 재배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圃에서는 젖소, 산양, 천서의 날개 등 종형 8종과 클로버, 하트, 물방울 등 소형 7종 총 350개의 현애국 조형 물이 만들어진다.



또한, 지난해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과 관련해 봉어섬 일원에도 전시했던 분화국과 현애국을 확대 생산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4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52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은 이듬해는 관광지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가보고 싶은 임실 만물기와 천만 광광 입실 시대를 열어가는 밀거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은 축제 기간 치즈테마파크 일대에 전시되며, 치즈 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사랑의 기쁨 그리고 힐링의 발원'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하브밸리 일원서 제27회 바래봉 철쭉제

남원시 운봉읍 애한회가 주관하는 제27회 지리산 운봉비래봉 철쭉제가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30일간 지리산하브밸리 일원에서 '사랑의 기쁨! 그리고 힐링의 발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운봉비래봉회는 오는 29일 운봉을 용산리 지리산하브밸리에서 기념식을 갖고 본격 손님맞이에 나서며, 바래봉은 나무로 만든 승려들의 밤그릇인 '바리따'를 엎어 좋은 모양이라는 의미로 불여진 전국 최대 철쭉제이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 가축 재해 보험 가입 독려

남원시가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질병, 화재 및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에 대비해 남원시가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의 50%는 국비, 35%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축산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으로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와 기타 가축(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 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순창군, 거리화단 화훼경관 모델 개발 현장 적용

순창군이 지난 19일 국립원예특작과 협원 순창경찰서와 손을 잡고 다양한 화훼류를 적용한 경관 화훼모델 개발을 위해 거리화단 조성에 나섰다.

세 개의 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화단 조성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거리화단을 순창군에 현장 적용하여 거리화단의 시각적 효과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된 유등주민복지센터는 주민카페, 풍이마을, 소회의실, 건강관리실,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갖춰졌으며,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사생방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봄, 여름, 가을 3계절에 경찰관들이 선호하는 거리화단을 순창경찰서 앞에 조성하여 화단 조성 전과 조성 후의 심리·생리적 변화를 확인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경관 화훼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음식점 위생관리

식품 안전 지도점검

임실군이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대비해 식중독 발생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8일까지 음식점 위생 관리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경기장, 철도역, 터미널, 관광지 주변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영업주·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식중독 예방 요령과 함께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응대 요령도 홍보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온남원공동체, 곳곳서 본격 활동 시작

도통동 마을계획단, 20일 동내 12개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 대표 연대 간담회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은 30개 공동체가 신청한 가운데 최종 13개의 팀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공동체는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로 지역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그 중 도통동 마을계획단은 20일, 동내 12개의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가 연대할 수 있는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도통동 마을계획단은 관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밀집 지역의 동 현장을 고려하여 주민 간 소통을 통해 이웃과 웃고 사는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고자 2021년도부터 활동 중인 온남원공동체이다. 특히 올해 도통동 마을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대반사 지리섬은 마을기록과 생애사 출간 등을 통한 '커뮤니티 아카이빙' 실현을 △구름길은 귀촌한 청년 부부들이 주축이 되어 운봉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나우원은 주기적인 포트리 파티와 청년오픈마이크 행사를 △남원원협청년회는 100미지기 논을 개간하여 농작물 수확 후 나눔을 △남원엄마들의 사랑방 교육공동체는 공동 유통에 이은 업사이클링을 △이그린아파트 공동체는 입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한 이웃 사랑 체험 활동을 △향교동마을공동체주진단은 향교동 거주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 예술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기자

순창군, 유등면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준공식 개최

순창군이 20일 유등면 주민복지센터에서 '유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신정이 순창군의회 의장, 전라북도의회 오은미의원, 군의원들과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유등주민복지센터'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의 거점공간인 지역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생활편의 시설 등을 종합

적으로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군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해 유등주민복지센터 조성과 주차장 조성, 중심가로 정비 등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된 유등주민복지센터는 주민카페, 풍이마을, 소회의실, 건강관리실,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갖춰졌으며,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사생방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밸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지역 소식통

순창군립도서관, 월 1회

인문학 강연 진행

순창군 군립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2023년 '봉(桶)하는 인문학 행복을 만나다' 인문학 강연을 이들부터 오는 10월까지 총7회 운영한다.

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인문학 강연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며 정지아, 김경일, 고미숙 등 스타강사 초청하여 마음, 역사, 문학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첫 번째 강연은 4월 25일 화요일 7시, 작년 최고의 화제작인 <아버지의 해방일자>를 쓴 정지아 작가의 불화의 시대 행복을 묻다'로 시작되며, 5월 30일 화요일은 고전 평론가로 활발한 방송 출연과 저술 작업으로 소통하는 고미숙 작가 백세 시대 백수로 잘 살아가기', 6월은 인자심리학자로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는 김경일 교수의 '행복한 삶의 법칙'이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음식점 위생관리

식품 안전 지도점검

임실군이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대비해 식중독 발생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8일까지 음식점 위생 관리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경기장, 철도역, 터미널, 관광지 주변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영업주·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식중독 예방 요령과 함께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응대 요령도 홍보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